

#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among Adolescents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석 사 이 재 희\*

조 교 수 이 지 민\*\*

Dep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

Master : Lee, Jae-Hee

Assistant Professor : Lee, Ji-Min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of different gender and grades. Further, it aim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career maturity to create career educational program for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44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selected from second grade of five schools in Daegu. All participants were tested o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scale.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wo-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18.0.

The results of the present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ANOVA subscale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and grade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Second,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of the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showed a positive and negative correlation. Third, in terms of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meaningful influence on career matur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fundamental reference in career counseling at school for enhanci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and success.

---

▲주요어(Key Words) :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청소년(adolescents)

---

\* 주 저 자 : 이재희 (E-mail : regina2279@naver.com)

\*\* 교신저자 : 이지민 (E-mail : ljimin@ynu.ac.kr)

## I. 서론

진로란 한 개인의 인생의 모습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진로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중학생은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등학생은 자신에게 적절한 진로 선택을 위해 여러 정보들을 탐색하고 진학과 취업과 같은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입시 위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의 길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2010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고민에 대한 조사 결과 15~24세 청소년 중 24.1%가 '직업'이 가장 고민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공부'라고 응답한 38.5%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직업이 고민이라고 답한 비율이 2002년에는 5.2%였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9.2%로 그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는 적극적으로 개인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대학 진학 후 진로에 대한 목표 선택과 나아가 성인의 자아실현과 직업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Lee & Lim, 2011; Lee & Moon, 2011). 즉, 청소년 시기의 진로에 관한 경험과 준비는 성인과 일생의 모습이 결정되는 직업 세계로의 이행과 관련되는 중요한 과업이며, 이 시기에는 자신의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정보수집과 탐색을 통해 명확한 목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진로발달을 연구한 Super(1969)는 진로를 전생애적인 발달이며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수행, 사회적 기대의 맥락, 직업 기회구조의 배경과 관련하여 발달한다고 보았다. 그 중 진로성숙도란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하는 위치로 정의하였다(Kim et al, 2010). 이는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사회적, 정서적,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 나가는가를 의미한다. Kim(2009)은 청소년의 진로지도의 과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진로 지도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진로성숙도의 개념은 청소년들의 진로상담과 진로지도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Lee, 1997; Song, 2011). 진로성숙도를 통해 그들에게 예비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미래의 직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Super, 1990).

한편, 청소년의 진로 선택 과정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개인내적인 변인(Au, 2009; Park & Kim, 2009)과 더불어 환경적인 요인(Lee & Moon, 2011; Lee & Yoon, 2011)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학교와 가정이라는 한정된 사회적 환경을 가지며 결정에 대한 능력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와 결정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Yu & Moon, 2005). 사회적지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타인인 부모를 포함한 가족, 친구 등 가까운 타인에게서 느끼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며, 이것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믿음과 도움을 주는 정도를 의미하며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 Kim(2009)의 연구에서 서울시 중학교 2학년 4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의 직업을 희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매스컴, 가족,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가족과 교사 등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력은 매우 크며, 이러한 주변의 영향으로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개인 일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내적 원동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관련된 변인인 Hackett and Betz(1981)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이라는 변인에 진로발달을 적용한 것으로, 진로선택과 적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의 자기효능감의 전체적인 수준을 의미한다(Lee, 2006). 즉,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정도이다.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음이 Kim and Lee(2007)에 의해 연구되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진로변인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결과도 있다(Lee, 2007). 또한 Park and Kim(2009)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의 높은 진단이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은 개인 욕구에 대해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Lee and Yoon(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정적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져, 부모의 적극적인 진로에 대한 지지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어 그들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부모의 사회적지지와 고등학교 3학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살펴본 다른 연구(Lee, 2006)에서는 부모의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에 알맞은 진로상담과 부모의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실제 진로 선택과 관련되어 발달론적 입장을 가진 이론들은 연령에 따라 개인의 직업 및 진로에 관련된 능력이 변화한다고 보며, 개인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의 정도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Ginzberg et al, 1951; Super, 1969; Crites, 1978). 즉,

진로성숙은 개인에 대한 탐색과 여러 정보들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고 그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학년에 따라서도 그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로성숙도는 발달론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연령에 따라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Kim et al, 2010; Cha et al, 2007).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Lim(2004)의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단기종단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별과 학년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과학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Yoo, Yoon & Kang, 2006)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Lee and Yoon(2011)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친구에 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Lee, 1997; Cha et al, 2007; Lee, 2012).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별에 따른 진로행동의 적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개인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발달요인 중에서 진로는 매우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며, 최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스스로를 잘 파악하여 진로에 관련한 것들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청소년들이 개인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에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사회·환경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사회적지지와 개인 내적인 신념을 나타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상담과 교육현장에서의 목표설정,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로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심리적독립(Lee, 2012), 진로준비행동(Kim & Jang, 2011) 등 다양한 변인들과 진로성숙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의미있는 타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개인내적 신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진로성숙도를 살펴보는 것도 진로상담과 교육현장에서의 시사점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과 진로성숙도와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선택의 전 과정에서 개인의 욕구와 상태에 대한 차별적인 처치(Kim et al, 2010)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기대되며, 더불어 청소년 개인과

부모, 교사 및 학교생활 전반, 나아가서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 현장에도 의의가 있는 연구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진로성숙도에 사회적지지와 개인의 진로에 대한 내적 평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D지역 중학교 2학년과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진로성숙도는 학령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향상되는데, 특히 중학교 2~3학년보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 진로성숙도가 급격히 발달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Song, 2011). 연구대상 학교 수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총 5개교로 선정하였으며 2011년 7월 5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설문지는 중학생 240명과 고등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총 470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총 44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에 관련된 사항은 <Table 1>과 같다.

### 2. 측정도구

#### 1) 사회적지지

Park(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Hwang(1996)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정보적지지(7문항)는 의사결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변의 지원정도를 의미하며, 정서적지지(6문항)는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로 배려, 이해와 사랑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물질적지지(6문항)는 돈, 물건 등에서 실제로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며, 평가적지지(5문항)는 중요한 타인에게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 = 447)

Variables		n	%	Variables		n	%
Gender	Male	239	53.5	Fa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95	43.6
	Female	208	46.5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237	53.0
	Total	447	100		Total	432	100
Grade	Middle school student	232	51.9	Mo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226	50.6
	High school student	215	48.1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204	45.6
	Total	447	100		Total	430	100
Family	Nuclear-family	383	85.9	Father Career	Specialized technical and directorate office	208	50.0
	Extended family and others	63	14.1		Sales service and production labor	99	23.8
	Total	446	100		Career-less and others	109	26.2
Birth Order	First	195	43.7	Mother Career	Career	217	48.5
	Second	62	13.9		Career-less	199	44.5
	Third	153	34.3		Total	416	100
	Only Child	36	8.1				
	Total	446	100				
Father Age	Under the age of 49	309	70.7	Income Level	Middle-high level	217	51.1
	Over the age of 50	128	29.3		Middle-low level	208	48.9
	Total	437	100		Total	425	100
Mother Age	Under the age of 49	401	91.8	Average Score	High-level	207	47.0
	Over the age of 50	36	8.2		Mid-level	170	38.6
	Total	437	100		Low-level	63	14.3
				Total	440	100	

서 평가, 칭찬 등을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총 24문항이며,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각각 .91, .88, .88, .87이었다.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etz와 Voyten(1997)이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를 Lee(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자기평가(7문항), 목표선택(9문항), 직업정보(5문항), 문제해결(3문항)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자기평가는 진로결정에 대하여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목표선택은 개인이 진로를 가장 현실적으로 선택하거나 잠정적으로 결정한 정도를 의미한다. 직업정보는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하는 직업 알기의 정도를, 문제해결은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수행 정도를 의미한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lpha$  .84, .86, .76, .68로 나

타났다.

## 3) 진로성숙도

Lee(1997)가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준비성(13문항), 목적성(13문항), 결정성(9문항), 확신성(9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준비성은 진로에 대한 개인의 의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탐색과 준비를 하는 정도이며, 목적성은 최종적 진로 선택 시 경제적인 보상, 승진 기회, 전망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수용 가능성인 자기개발, 대인관계 등의 자아실현적 요소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결정성은 개인의 진로 방향이 명확히 정해진 정도이며, 확신성은 개인의 진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정도를 나타낸다. 총 47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준비성 .86, 목적성 .87, 결정성 .91, 확신성 .81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8.0을 사용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및 학년에 따른 기술 통계치는 <Table 2>와 같다.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에서 중학교 남학생의 평균이 3.37, 중학교 여학생이 3.62로 여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목표선택, 준비성, 목적성, 결정성과 중학생의 확산성에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진로성숙도의 목적성( $F = 4.59, p < .05$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모두 여학생이 직업을 선택할 때 대인관계 등의 사회 수용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년에 따라서는 목표선택( $F = 3.98, p < .05$ ), 준비성( $F = 10.94, p < .001$ ), 목적성( $F = 3.60, p < .05$ ), 결정성( $F = 10.68,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Lee and Jang(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학년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목표선택( $F = 4.06, p < .05$ )과 확산성( $F = 3.62, P < .05$ )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에 따른 조절효과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선택에서의 성별과 학년 간 상호작용은 <Figure 1>과 같이 나타나며, 남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목표선택 정도가 높아지는데 반해, 여학생의 경우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효과는 <Figure 2>와 같이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에 대한 확산성이 높아지고, 이에 비해 여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확산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Age and Gender

(N = 447)

Variables		Middle school 2		High school 2	
		M	SD	M	S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goal				
	Male	3.37	.63	3.52	.62
	Female	3.62	.66	3.52	.69
	Prepare				
	Male	3.55	.59	3.70	.53
	Female	3.81	.56	3.80	.58
Career Maturity	Objective				
	Male	3.30	.60	3.51	.57
	Female	3.50	.67	3.53	.58
	Decisiveness				
	Male	3.15	.82	3.20	.96
	Female	3.49	.87	3.41	.87
Certainty					
	Male	3.03	.57	3.05	.65
	Female	3.18	.64	2.98	.64

Table 3. Two-way ANOVA f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N = 447)

Variables		SS	df	MS	F
Career goal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Gender	.045	1	.045	.11
	Grade	1.679	1	1.679	3.98*
	Gender × Grade	1.715	1	1.715	4.06*
	Error	187.018	443	.422	
	Total	5692.068	447		
Prepare					
	Gender	.529	1	.529	1.64
	Grade	3.529	1	3.529	10.94***
	Gender × Grade	.682	1	.682	2.11
	Error	142.965	443	.323	
	Total	6313.996	447		
Objective					
	Gender	1.696	1	1.696	4.59*
	Grade	1.329	1	1.329	3.60*
	Gender × Grade	.930	1	.930	2.52
	Error	163.754	443	.370	
	Total	5511.530	447		
Career Maturity					
Decisiveness					
	Gender	.038	1	.038	.05
	Grade	8.320	1	8.320	10.68***
	Gender × Grade	.419	1	.419	.54
	Error	345.061	443	.779	
	Total	5250.677	447		
Certainty					
	Gender	.869	1	.869	2.30
	Grade	.200	1	.200	.51
	Gender × Grade	1.408	1	1.408	3.62*
	Error	172.181	443	.389	
	Total	4379.004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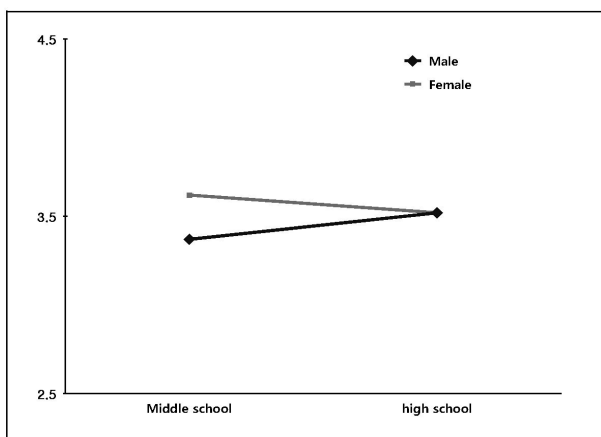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Figure 1. Gender × Grade on Career go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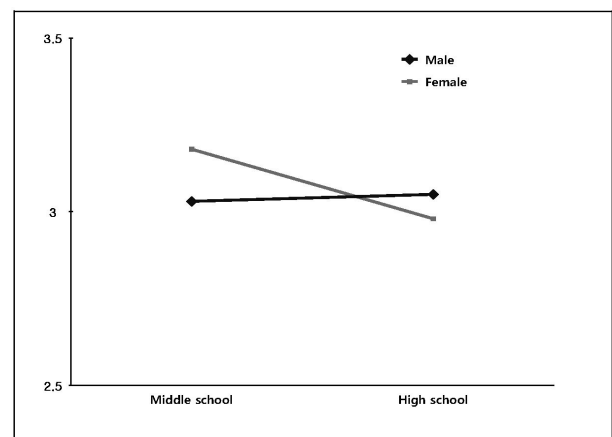


Figure 2. Gender × Grade on Certainty

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N = 447)

	1	2	3	4	5	6	7	8	9	10	11	12
<b>1</b>	<b>1.00</b>											
<b>2</b>	.73***	<b>1.00</b>										
<b>3</b>	.77***	.78***	<b>1.00</b>									
<b>4</b>	.63***	.69***	.74***	<b>1.00</b>								
<b>5</b>	.24***	.26***	.30***	.26***	<b>1.00</b>							
<b>6</b>	.30***	.31***	.35***	.30***	.74***	<b>1.00</b>						
<b>7</b>	.30***	.31***	.32***	.31***	.66***	.63***	<b>1.00</b>					
<b>8</b>	.09	.14**	.06	.11*	.15***	.17***	.33***	<b>1.00</b>				
<b>9</b>	.31***	.35***	.39***	.37***	.58***	.68***	.49***	.19***	<b>1.00</b>			
<b>10</b>	-.05	-.00	-.01	.01	.16***	.27***	-.03	-.14**	.24***	<b>1.00</b>		
<b>11</b>	.09	.11**	.14**	.12**	.61***	.64***	.35***	-.09*	.52***	.46	<b>1.00</b>	
<b>12</b>	.17***	.12**	.22***	.17***	.53***	.46***	.39***	-.06	.37***	.38***	.54***	<b>1.00</b>
<b>Mean</b>	3.70	3.54	3.55	3.51	3.14	3.51	3.02	3.16	3.71	3.46	3.31	3.07
<b>SD</b>	.71	.67	.67	.72	.69	.65	.67	.75	.58	.61	.89	.63

\* $p < .05$ , \*\* $p < .01$ , \*\*\* $p < .001$

1: Motional support 2: Informational support 3: Assessmental support 4: Material support 5: Self-estimation  
6: Career goal 7: Occupational-knowledge 8: Problem solving 9: Prepare 10: Objective 11: Decisiveness 12: Certainty

### 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적성( $r = -.14, p < .01$ )과 결정성( $r = -.09, p < .05$ )에서 부적상관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 3.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 VIF지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이하(1.02 ~ 3.96)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성에는 학년( $\beta = .04, p < .01$ )과 물질적지지( $\beta = .07, p < .05$ ), 목표선택( $\beta = .50,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총 51%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학년이 높은 경우, 물질적지지와 목표선택이 높은 경우 진로에 대한 준비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적성은 목표선택( $\beta = .44, p < .001$ ), 직업정보( $\beta = -.28, p < .001$ ), 문제해결( $\beta = -.14, p < .01$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총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에 대한 목표선택이 명확한 경우 진로결정을 할 때 대인관계, 자아실현 등의 사회수용적인 부분을 고려함을 의미한다.

결정성은 학년( $\beta = .08, p < .05$ ), 자기평가( $\beta = .37, p < .001$ ), 목표선택( $\beta = .49, p < .001$ ), 직업정보( $\beta = -.10, p < .05$ ), 문제해결( $\beta = -.19, p < .001$ )과 유의미했고 전체변수의 총 설명력은 51%였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잘 알수록, 진로 목표선택이 명확할수록 진로에 대한 결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직업정보와 문제해결정도가 낮을수록 진로에 대한 결정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확신성의 경우 정보적지지( $\beta = -.17, p < .05$ ), 자기평가( $\beta = .39, p < .001$ ), 목표선택( $\beta = .13, p < .05$ ), 문제해결( $\beta = -.16, p < .001$ )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적 지지가 낮을수록, 자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목표선택이 명확하고 문제해결능력이 낮을수록 확신성이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Table 5. Effect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N = 447)

Variables	Prepare		Objective		Decisiveness		Certainty		
	B	$\beta$	B	$\beta$	B	$\beta$	B	$\beta$	
Gender	.07	.06	.11	.09	-.01	-.00	-.05	-.04	
Grade	.12	.04**	.03	.03	.15	.08*	.01	.01	
<b>Social support</b>	Emotional support	-.02	.04	-.09	-.10	-.06	-.05	.03	.04
	Informational support	.03	.05	.04	.04	.03	.02	-.15	-.17*
	Assessmental support	.06	.06	-.08	-.09	-.10	-.08	.12	.13
	Material support	.09	.07*	.06	.07	.00	.00	.01	.01
<b>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b>	Self-estimation	.14	.10	.06	.07	.48	.37***	.35	.39***
	Career goal	.44	.50***	.41	.44***	.67	.49***	.12	.13*
	Occupational-knowledge	.01	.03	-.25	-.28***	-.14	-.10*	.09	.10
	Problem solving	.01	.06	-.11	-.14**	-.22	-.19***	-.14	-.16***
<b>Constant</b>	<b>.82***</b>		<b>.30***</b>		<b>.87***</b>		<b>1.70***</b>		
<b>adj. R<sup>2</sup>(R<sup>2</sup>)</b>	<b>.51(.52)</b>		<b>.15(.17)</b>		<b>.51(.52)</b>		<b>.32(.33)</b>		
<b>F</b>	<b>46.94***</b>		<b>9.14***</b>		<b>47.00***</b>		<b>21.71***</b>		

\* $p < .05$ , \*\* $p < .01$ ,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447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ow-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목적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에 대해 승진기회나 급여, 부모님의 기대 등의 현실적인 사항보다 개인의 자아실현, 대인관계 등을 우선시 하는 목적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를 선택하는데 자아실현, 대인관계 등의 사회수용적인 부분을 더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성숙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결과(Kang & Lee, 2011; Lee, 1997)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같은 학년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으므로, 성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이

구체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선택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더 활발했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선택 정도가 높았다. 이와 같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은 결과는 발달이론적 변인인 진로성숙도가 연령에 따라 발달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Super, 1990; Lee & Jang, 2008; Song, 2011). 따라서 진로성숙이 발달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현장에서 연령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Kim and Ji(2002)가 진로지도의 방향을 초등학생을 진로인식단계, 중학생은 진로탐색단계, 고등학생은 진로준비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학년 별로 진로에 관련된 과업을 구분하여 나눈 지침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편,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 결과, 목표선택과 확신성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높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믿음이 더 명확히 함을 의미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진로효능감과 진로포부가 낮아졌다는 Yang(200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며, 실제 남학생에게 여학생보다 더 높은 지위를 기대하거나 성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진로상담 현장에서는 여학생들에 대해서 성역할에 제한되지 않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영역을 살펴볼 수 있고, 직업세계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반면, 진로를 결정할 시 경제적인 부분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인생의 방향과 모습을 결정짓는 진로 결정에 있어 자칫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적절한 진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며, 진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현실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성취욕구와 흥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개발, 대인관계 등의 사회수용적인 요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대체로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 and Yoon(2011)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문제해결력의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이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진로문제에 대해서 방향전환이라는 회피적 결정이 아닌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노력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진로에 대한 명확한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헤쳐나가는 힘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청소년의 학년, 성별,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높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이 학년에 따라서 유의미함은 Super(1969)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행동이 더욱 구체화되고 행동화된다는 진로발달이론을 지지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처럼 진로상담 및 교육현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것(Kim, 2009)으로,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탐색으로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요인들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진로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준비성에는 물질적지지와 목표선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여 진로에 대한 준비정도가 달라지며(Lee & Jang, 2008), 또한 목표를 선택하는 정도에 대한 자신감도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는 진로 지도 및 상담을 할 때, 개인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음을 시사하는데, 진로 교육과 상담 현장에서 진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비전과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적성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and Jang(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진로에 대한 목표선택이 명확한 경우 진로결정에 대한 목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정성은 직업정보와 문제해결능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스스로 진로라는 큰 과업을 선택하는데 주변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Lee & Yoon, 2011). 즉, 자신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작업인 진로에 대한 결정은 여러 직업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확신성의 경우, 자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진로에 관련된 목표선택이 명확할수록 그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고 확신이 있으면 그에 따른 진로 준비 행동 및 결정과 선택도 개인의 의지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Park & Kim, 2009).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지지와 같이 주변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와 여러 자원들이 청소년들에게는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는데, Kim and Jang(2011)의 연구에서도 공업고등학생들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 준비에 대한 행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주변 타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탐색 정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Blustein, 1989). 이처럼 의미있는 타인의 적극적인 지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결정과 탐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내적인 부분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의 전반적인 탐색과 선택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믿음이 깊거나 성공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된 청소년일수록 진로에 대한 탐색과 준비 정도가 높음은 여러 연구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Au, 2011; Kim & Jang, 2011). Au(2011)는 청소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시기의 지속적인 진로상담이 대학 입학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진로상담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내적인 선택요인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였고, 대학 진학 후 전공만족도가 높아 진로성숙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로상담 혹은 진로지도 현장에서 개인 스스로에 대한 깊은 탐색과 함께 자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더

불어 대내외적인 활동과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D지역의 중·고등 학생으로 제한된 것으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가족관련변인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실제 진로상담 현장에서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프로그램과 진로상담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개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로성숙도는 각 발달 시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단연구를 실시한다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 REFERENCE

- 통계청 (2002).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 통계청 (2010).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 Au, Y. K.(2011). The relation between the career counseling activity,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ation :Regulating effect of decision-making criterion for major.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5), 1793-1811.
- Betz, N. E. & Vuyten, K. K.(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 Blustein, D. L.(1989). The role of goal in 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194-203.
- Cha, J. E., Kim, A. Y., Lee, E. K. and Kim, B. W.(2007). Gender Difference and Developmental Trend in Career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among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21(4), 923-944.
- Crites, J. O.(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CA: CTB/McGroaw-Hill.
- Ginzberg, E., Ginzberg, S. W., Axelrod, S.,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ckett, G. &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wang, Y. K.(1996). *Study on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dolescent peer-group and Psychosocial Matur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University of Ewha, Seoul.
- Kang, R. H. & Lee, M. J.(2011).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Career Attitude, Occupation Value,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5), 941-953.
- Kim, B. W.(2009). Career Guidance Tasks for Unbalanced Preferences of Youth for Certain Vocation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2(4), 63-83.
- Kim, B. W., Lee, J. K., Yu, H. S., Hwang, M. H., Kong, Y. J., Son, E. R., Kang, H. Y., Kim, J. H., Yu, J. G., & Lim, E. M.(2010). *Career counseling*. Seoul: Hakjisa.
- Kim, C. K. & Ji, Y. K.(2002). An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Vocational Personalit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5(1), 29-46.
- Kim, H. J. & Jang, Y. O.(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support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1-32.
- Kim, S. R. & Lee, J. C.(2007).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 Career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2), 393-407.
- Lee, E. J. & Jang, E. Y.(2008).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Related Variables o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5), 355-376.
- Lee, E. J.(2001). *Effects of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Yonsei, Seoul.
- Lee, J. H. & Lim, S. T.(2011). The Moderating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of Major and Career Stres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3), 133-146.
- Lee, J. H. & Moon, E. M.(2011). The Effects of Decision Scale from Parental Career Support to Juveniles as Perceived by both.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8(1), 211-226.
- Lee, J. H.(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 Independ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University of Yeungnam, Daegu.
- Lee, J. K.(2006).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in the Third Grade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3), 571-586.
- Lee, K. H. & Yoon, M. H.(2011). The Effect of Parent Factor,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Mature Career Choice in Adolesc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6(1), 175-199.
- Lee, K. H.(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Yonsei, Seoul.
- Lee, S. H.(2007). Examination of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2), 375-392.
- Lim, E. M.(2004). The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Youth's Career Matur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2(3), 325-348.
- Park, J. W.(1985). *A Study for the general Social support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Yonsei, Seoul.
- Park, W. S. & Kim, M. S.(2009).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2(4), 85-108.
- Song, M. K.(2011). A Study on career maturity and decision-making transitions of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329-347.
- Super, D. E.(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 *Counseling Psychologist*, 1, 19-23.
-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Jossey-bass.
- Yang, N. M.(2008).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of Sex-role stereotype and Career aspir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9(2), 537-550.
- Yoo, S. H., Yun, K. M., & Kang, S. H.(2006).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between the Gifted in Science and the Average Middle School Students by Gender and Grad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7(2), 399-415.
- Yu, Y. M. & Moon, S. T.(2005).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8(1), 1-19.

접수일 : 2012년 05월 15일  
 심사일 : 2012년 06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6월 25일